

발명인의 축제 '2002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세계 최대 규모로 개최

대통령상에 (주)엠피맨닷컴 문광수 대표이사 등 117명 수상하다



▲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린 '2002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전시장 내부모습으로 관람객들이 전시 제품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둘러보고 있다.

(1면에 이어서)

2002년 우리나라 발명 특허계를 총결산하고 세계적인 우수 발명품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달 4일부터 8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일간 열려, 발명에 관심있는 이들의 많은 호응 속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전시물은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에는 발명가,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신청한 발명품 중에서 두 차례에 걸친 엄정한 심사로 선정된 192점이 전시되었으며, 그 중 117개 회사 또는 개인이 상을 받았다.

국제발명전의 경우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등 34개 국가에서 출품한 374건의 발명품이 전시되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발명품의 사업화'란 주제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IFIA(세계발명가협회연맹) 주최의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되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와 같이 이번 대회는 단순한 전시회를 떠나 발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특허 기술과 기술이동에 관한 정보, 발명 기술의 상품화 및 진흥을 포괄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관식 및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시상식에는 김석수 국무총리,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김광림 특허청장, 박광태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발명가들을 격려했다.

2002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에서 올해의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은 '엠피이치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재생장치 및 방법(특허 제0287366호)'을 출품한 문광수((주)엠피맨닷컴 대표이사)씨가 차지했고, 국무총리상에는 '기질상에 높은 아민기 밀도를 갖는 분자층을 형성하는 방법(특허 제0345690호)'을 출품한 포항공과대학교와 '자전거의 가변식 페달 구동장치(특허 제0348598호)'를 출품한 강병남((주)비비엔스피디 대표이사)씨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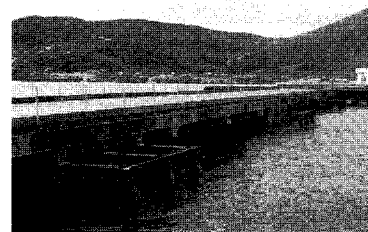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국제관, 국내관, 지원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국제관에는 외국발명관, 국제기구, 학생관과 6개 대륙별 해외거주 교민들의 발명품이 전시되는 한민족관이 포함된다. 국내관에는 특허기술대전관을 비롯해 유통관과 여성관이, 지원관에는 특허기술이전과 기업별 테마관, 체험관, 홍보관 등이 배치된다.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한국발명진흥회의 이집중 전시기획본부장은 "이번 국제발명전은 세계 최대 규모로 그동안 외국발명전에서 많은 수상 경험을 쌓은 국내 발명 기술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는 기회"라며 "발명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교류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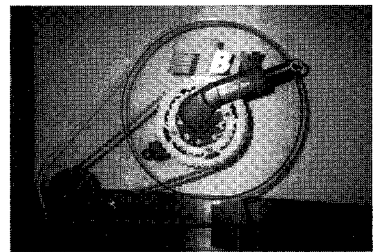


◀ '글로벌 시장에서의 발명품의 사업화'란 주제로 열린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IFIA(세계발명가협회연맹) 주최의 국제 심포지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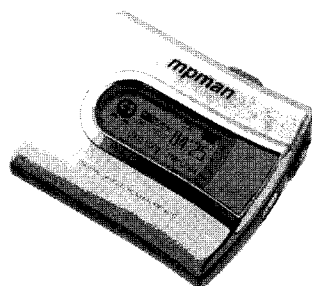
2002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수상작 보기



▲ (주)스틸토리아 박대열 대표이사는 '조립식 장력 강재보(ATOM 가설교량공법)' 기술로 세계발명가협회연맹 회장상을 수상했다.



▲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주)비비엔스피디 강병남 대표이사는 '가변식 자전거 페달 구동장치'를 개발하였는데, 이 페달 구동장치를 이용하면 15% 이상의 주행에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엠피맨닷컴의 휴대용 mp3.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음성녹음, 라디오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춘 실용적인 제품이다.